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김용하 · 윤강재 · 김계연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 T H
A N D S O C I A L
A F F A I R S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과제	5
II. 국내외 행복지수 산출 동향	9
1. 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산출 동향	9
2. 개별 국가들의 행복지수 산출 동향	17
3.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산출 동향	24
III. 연구방법	33
1. 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33
2. 국가별 순위산정 방법	45
IV. 행복지수 산정결과	55
1. OECD 국가의 종합 순위 및 점수	55
2. OECD 국가의 범주별 순위 및 점수	56
V. 결론	65
참고문헌	67
부 록	71

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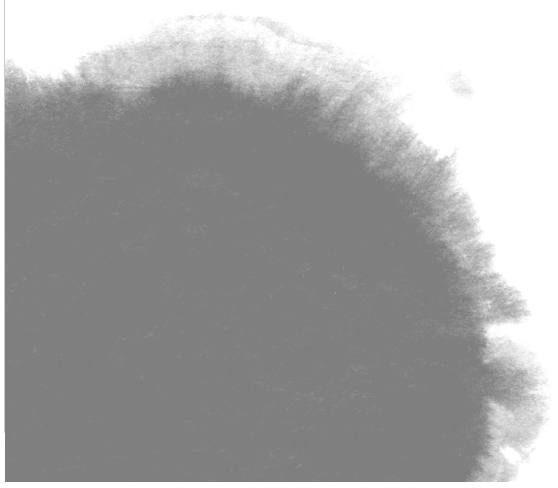
〈표 1〉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구성	10
〈표 2〉 UNDP의 인간개발지수	11
〈표 3〉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13
〈표 4〉 OECD Factbook 주요 지표(2008년 기준)	15
〈표 5〉 OECD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 구성	17
〈표 6〉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의 구성	18
〈표 7〉 일본 신국민생활지표 체계표	20
〈표 8〉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세부지표 구성	24
〈표 9〉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조사항목별 결과	27
〈표 10〉 ‘삶의 질’ 지수 산출을 위한 분야별 선정지표 및 측정방법	27
〈표 11〉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	28
〈표 12〉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의 구성	34
〈표 13〉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산정 최종 지표 및 자료원	44
〈표 14〉 응답자 특성	47
〈표 15〉 세부지표별 가중치	48
〈표 16〉 범주별 가중치	49
〈표 17〉 OECD 국가 종합 순위 및 점수	55
〈표 18〉 OECD 국가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순위 및 점수	56
〈표 19〉 OECD 국가의 자립 범주 순위 및 점수	57
〈표 20〉 OECD 국가의 형평성 범주 순위 및 점수	58
〈표 21〉 OECD 국가의 건강 범주 순위 및 점수	59
〈표 22〉 OECD 국가의 사회적 연대 범주 순위 및 점수	60
〈표 23〉 환경 요인 순위 및 점수	61
〈표 24〉 생활만족도 순위 및 점수	62

그림 목 차

[그림 1] 삶의 질 결정모형2

01

서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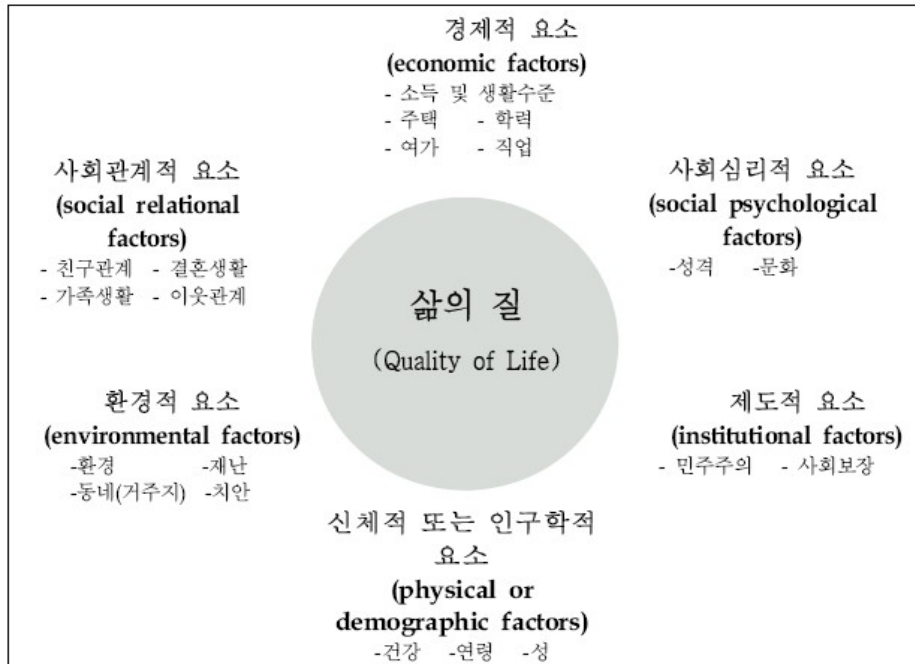
-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질 및 행복(well-being)수준의 향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천명하고 있는 보건 복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임.
-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의 목표로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로 국민소득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인 요인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이는 삶의 질과 소득수준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여러 국가 또는 여러 사회들을 비교하고 순위를 부여하는 시도로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방식임.
 - 경제적 소득수준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인 물질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경제적 소득수준은 계량화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산출이 가능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데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수준이 가지는 의미는 여전히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삶의 질 수준을 단순히 소득수준에 관련된 지표로만 측정할 수 없는 복합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주목받고 있음.

- 행복수준과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관계를 나타낼 때, 빈곤선에 근접할수록 소득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나타나 가난한 나라일수록 소득이 행복에 비교적 확실한 영향을 미치나, 일단 일인당 국민소득이 \$15,000을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지수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장영식, 2007).

□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자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s), 사회관계적 요소(social relational factors), 사회심리적 요소(social psychological factors),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 제도적 요소(institutional factors),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physical or demographic factor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김승권, 2008).

[그림 1] 삶의 질 결정모형



– 대체로 이러한 측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산요인’과 ‘감산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가사노동과 여가, 육아 및 자원봉사활동, 교육기회, 건강과 장수, 사회간접자본, 형평성 등을 가산요인으로, 공해와 자연자원의 감모, 교통사고, 이혼, 범죄, 문맹, 정치적 탄압 등을 감산요인으로 삶의 질 측정에 반영하고 있음(윤면식, 2006).

□ 경제적 지표나 사회적 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 이외에도 생활만족도 조사와 같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만족 또는 행복 수준을 조사하여 이를 삶의 질 측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존재함.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 수준의 측정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경제적 소득수준 이외의 영역들로 측정의 외연을 확대시킴으로서 관련되는 부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이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물질적 요인들의 측정 뿐만 아니라 각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구성되어 온 제도적, 문화적, 사회관계적 요인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가변적인 주관적 생활만족도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최근 각국 정부들은 물론 여러 국제기구들은 국민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고자 각종 행복(well-being)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한 국가의 행복지수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준다는 서술적 의미 외에도 보건복지와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정책의 개발과 계획,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님.

– 행복지수는 사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달과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지도자들의 책임성 유지, 광범위한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모니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사회발전에 대한 목표와 열망을 측정 가능한 outcomes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와 발전에 대한 공공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을 지원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행복지수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동일한 지표를 여러 국가들에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정도를 비교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 그리고 정책적 차이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결국 현재 삶의 질 또는 행복 수준의 측정 동향은 경제적·사회적·주관적 요인들을 종합하여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이들 개별 지표들 간의 우선순위 설정과 표준화 방법, 가중치 설정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입장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행복(well-being)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들을 수집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의 위치 파악과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 사회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복지수로는 경제, 사회, 환경, 주관적 차원의 범주를 포함하는 OECD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를 활용함.

□ 행복지수를 통하여 파악·비교되는 삶의 질 수준은 관련 정책의 설계 단계와 정책 효과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하며,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 기대됨.

2. 연구 내용

□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행복(well-being)지수 산출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함.

□ 국내외 삶의 질 또는 행복지수 산출 동향 검토

- 국제기구의 삶의 질 또는 행복 관련 지수 산출 동향 검토

- OECD, WHO, UNDP 등 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산출의 목표 및 지표 구성에 대한 검토
- 국가 간 지수의 순위에 대한 검토 및 요인에 대한 분석
- 개별 국가의 삶의 질 또는 행복 관련 지수 산출 동향 검토
 - 캐나다, 영국, 부탄, 뉴질랜드 등 개별 국가의 행복지수 산출 목적 및 정책적 활용 동향 검토
- 우리나라의 삶의 질 또는 행복 관련 지수 산출 동향 검토
 - 국내 복지관련 지표 산출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점 분석
- OECD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 구성 및 산출 방법 고찰
 - 국가간 수준 비교를 위하여 OECD National Index of Well-being지표를 활용
 - OECD NIW 지표 구축의 목적 및 활용의 유용성 검토
 - 지표의 범주별, 범주 내 세부 구성 지표의 내용 분석
 - 지표 산출에 사용된 분석 자료 검토
 - 산출방법론에 대한 고찰
 - normalising 및 weighting 방법론에 대한 검토
-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출 결과 및 해석
 - OECD 국가의 범주별 지표 산출 결과 및 순위를 제시하고 결과가 나타난 요인에 대한 해석
- 행복지수 산출 및 국가간 비교에 따른 정책적 함의
 -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를 가지고 범주별 차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복지정책설계 단계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종합지수 산출 결과를 국제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과제

- 삶의 질 또는 행복수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와 방법을 통한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가짐.

- 본 연구에서 사용한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는 OECD의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안한 지표로서 실제 이를 활용하여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 사례는 없음.
- 다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와 핵심적인 소수의 지표를 사용하여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경우는 각각 장단점이 있음. 본 연구의 NIW는 상대적으로 다수 지표를 활용하는 바, ‘행복’의 여러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표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체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OECD 회원국 내에서도 국가별로 지표의 특성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표의 경우 국가간 비교시 지표의 생산 시기(발표 시기), 국가별 산출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환경 분야의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로서, NIW에 서는 독립적인 분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측정을 위한 지표로까지 구체화되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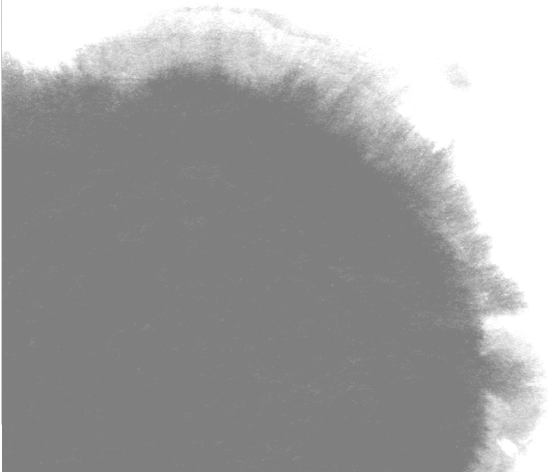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대기(CO2 배출량), 수질(정화시설 활용 인구비율), 생활환경(쓰레기 배출량), 토양(농약사용량) 등 4개 분야에서 지표를 선정하였음.
- 또한 환경 분야 지표들은 측정시점과 측정지점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분야에 보다 정밀한 지표 활용이 요구됨.

□ 상이하게 표현된 단위와 간격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본 중 최고 수치 혹은 최저 수치를 기록한 국가를 기준으로 대비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 경우 특이값(outlier)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

□ 향후 시계열적인 자료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분석 및 기중치 설정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법 적용 등을 통하여 행복지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임.

02

국내외 행복지수 산출 동향



II. 국내외 행복지수 산출 동향

1. 국제기구의 행복지수 산출 동향

- 개별 국가들의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에서도 회원국들의 후생복지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고자 각종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국제기구들이 산출하는 지표는 각국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활용되며, 해당 국가들에서는 분야별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외부자료로서 활용된다고 할 수 있음.

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수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WEF, 2008)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왕윤중, 1999).
 - 따라서 GCI를 엄밀한 의미의 행복 관련 지수로 보기는 어려우나, 산출 과정에 있어서 12개 영역(pillar)별 정량적 자료와 서베이 자료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과 가중치 부여 등에서 벤치마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CGI는 기본 요소(Basic Requirement), 효율성 제고(Efficiency Enhancers), 기업 혁신 및 정교화 요인(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등 3개 기본 분야 내에 12개의 영역(pillar)을 두고 각각의 세부지표를 평가함.

- 지수 산출을 위해서 두 가지의 자료를 결합하는데, 첫 번째 자료는 경제성과, 기술적 역량, 사회간접자본 등의 양적 변수이며, 두 번째 자료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경영진의 의견을 취합하는 Executive Opinion Survey 결과임.

〈표 1〉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구성

기본분야	영역(pillar)	지표(중분류)	지표(소분류)
기본 요소 (Basic Requirement)	제도적 요인	공공제도	재산권, 공공윤리, 정부의 비효율성 등
		민간제도	기업윤리, 납세의무 등
	인프라	일반 인프라	전반적 인프라 수준
		특수 인프라	도로, 철도, 통신 등 인프라의 수준
	거시경제 안정성		저축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정부부채 등
	보건 및 초등교육	보건	질병유병율, 영아사망률, 기대여명 등
일차 교육		일차 교육의 질, 교육비 등	
효율성 제고 (Efficiency Enhancers)	고등교육과 훈련	교육의 양	교육년수, 교육비 지출 등
		교육의 질	교육시스템, 수학 및 과학교육, 인터넷 활용도 등
		훈련	훈련프로그램 등
	상품시장의 효율성	경쟁	국내 경쟁, 대외 경쟁 등
		수요의 질	소비자 지향성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	유연성	노동시장과 임금의 유연성, 고용 등
		효율적인 자원활용	비용 및 생산성,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등
	금융시장의 성숙도	효율성	재무구조, 기업자금 대부 접근 용이성, 자본흐름의 규제 등
		신뢰도	재정건전성, 법적인 권한 ed
	과학기술 수준		전자통신 기술, PC 활용도, 인터넷 등
시장 규모	국내 시장규모		
	해외 시장 규모		
기업혁신 및 정교화 요인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기업 활동의 정교화	네트워크 및 기업 지원	기업지원의 양 및 질 등
		기업운영 및 경영 정교화	
	혁신		혁신 가능성, R&D 지출, 정부의 지원 등

□ 각각의 세부지표별로 7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여기에 가중치를 두어 최종 점수를 결정함.

- 측정단위의 상이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한 후 정량 자료에는 표준화점수의 3/4, 서베이 자료에는 표준화점수의 1/4의 가중치를 두어 지수를 구성함.
- 2008~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3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전년도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결과임.

나. UNDP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0여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간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비교하고 있음(UNDP, 2008).

- 인간개발지수는 각 국의 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화하여 측정함.
-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HDI 순위는 26위로서, 2006년과 동일하며, 1, 2, 3위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 차지하였음.

〈표 2〉 UNDP의 인간개발지수

차원	지표	차원지수
길고 건강한 삶 (a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 기대여명	평균수명지수
지식(knowledge)	• 성인문자해독률	교육지수 =2/3(성인문자해독률)+1/3(교육기회)
	• 교육기회(취학률)	
삶의 적정 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	• 1인당 국내 총생산(PPP)	국내 총생산 지수

□ HDI는 평균수명(X1), 교육지수(X2), 일인당 국내총생산(X3)에 대해 표준화 한 후, 이를 평균손실지표(average deprivation indicator)로 만들고 1에서 빼주는 방식으

로 산출함. 즉,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산출식을 가짐.

$$(1\text{단계식}) \quad I_{ij} = \frac{X_i - \min(X_i)}{\max(X_i) - \min(X_i)}$$

i : 지표 j : 국가

$\max(X_i)$: 해당 지표중 최대값

$\min(X_i)$: 해당 지표중 최소값

$$(2\text{단계식}) \quad I_j = \frac{1}{n} \sum_{i=1}^n I_{ij}$$

$$(3\text{단계식}) \quad (HDI)_j = (1 - I_j)$$

□ 기본적으로 HDI는 일인당 국민소득만으로 평가하여 왔던 사회의 행복 수준 측정의 결함을 보완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HDI는 한 국가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보다 정교하게 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HDI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위, 중위, 하위 국가들 간에는 HDI 구성요소의 가중치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이현재, 2006)

□ UNDP는 인간개발지수와 함께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및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함께 발표

- GDI는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과 함께 남녀소득의 차이로 산출함.
- GEM은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 행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표화한 것으로서, 여성의원의 비율, 여성의 고위행정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직 비율, 남녀소득차 등으로 산출함.

다.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

태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이라고 정의내리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삶의 질 척도 (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라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음(WHO, 1998).

〈표 3〉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영역	Facets incorporated within domains
1. Physical Health(신체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삶과 건강의 전반적인 질) • Energy and fatigue (체력과 피로) • Pain and discomfort (통증) • Sleep and rest (수면과 휴식)
2. Psychological(심리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dily image and appearance (외모에 대한 생각) • Negative feelings (부정적 감정) • Positive feelings (긍정적 감정) • Self-esteem (자존감) • Thinking, learning, memory and concentration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3. Level of Independence (자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bility (이동성)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적 활동) • Dependence on medicinal substances and medical aids (약물 및 의료기구 의존도) • Work capacity (노동 능력)
4. Social Relations(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sonal relationships (대인관계) •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원) • Sexual activity (성적 활동)
5. Environment(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portunities for acquiring new information and skills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의 기회) • Participation in and opportunities for recreation/leisure(여가 참여기회) •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 환경) (pollution/noise/traffic/climate)(공해/소음/교통/기후) • Transport (교통망)
6. Spirituality/Religion/Personal beliefs(종교 및 개인적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igion/Spirituality/Personal beliefs(종교 및 개인적 신념)

□ WHOQOL은 100개의 세부문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원적인 측정 도구이나, 지나치게 문항이 상세하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단축형인 WHOQOL-BREF도 개발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음.

– WHOQOL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 으나,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라기 보다는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질환 이후의 삶의 질 변화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됨.
- 국내에서의 활용 역시 위암 수술환자의 삶의 질(박이진, 2004), 방사선 치료 중인 암환자의 삶의 질(양종철, 2004),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2002)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었음.
 - 또한 WHOQOL은 자기보고식의 도구이므로 객관적인 지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삶의 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음.

라. 행복한 지구 지수(HPI: The Happy Planet Index)

- 런던에 본부를 둔 신경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이 2006년 산출하여 발표한 행복한 지구 지수(HPI)는 생태학적 관점이 반영된 행복지수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음(NEF, 2006).
 - HPI는 인간의 생활과정에서 초래되는 생태학적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GDP 등 경제적 수준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평가와 차이점이 있음. HPI 산출식은 다음과 같으며, 만점(reasonable ideal)은 83.5점임.

$$HPI = \frac{LS \times LE}{EF}$$

L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LE: 기대여명(life expectancy)

EF: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

- 생활만족도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각 국가의 기대여명 자료는 UN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인용하였음.
-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지구상의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의 순소비(net consumption of nation)와 국가의 생물학적 총가용 면적(total biological capacity of nation)으로 구성됨.

- 국가 순소비(net consumption of nation): 작물재배, 목초지, 어장, 산림, 시가지 등에 사용된 면적, 이산화탄소 저감에 필요한 면적 등
 - 국가의 생물학적 총가용 면적(total biological capacity of nation): 활용가능한 작물재배지, 목초지, 어장, 산림, 시가지, 에너지 축적 면적 등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계 178개국의 HPI 지표를 산출한 결과 바누아투(68.2점), 콜롬비아(67.2점), 코스타리카(66.0점) 등이 1~3위를 차지한 반면, OECD 회원국들은 멕시코(54.4점)가 38위로 가장 높고 미국(28.8점) 150위, 영국(40.3점) 108위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을 형성하였음. 한국의 점수는 41.1점으로서 102위를 차지하였음.

마. OECD의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

□ OECD는 매년 『OECD Factbook』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데에 유용한 100여개의 지표를 국가별,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음.

〈표 4〉 OECD Factbook 주요 지표(2008년 기준)

부문	주요 지표
인구	인구규모, 인구 증가율, 출산률, 고령인구
거시경제	GDP, 1인당 GNI, 저축률, 투자율
경제의 세계화 수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비중, 교역량, 국제수지
물가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구매력평가환율
에너지	에너지 공급량, 전력·원자력·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
노동	고용률,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근로시간
과학기술	R&D 투자, ICT 규모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소비량, 폐기물배출량
교육	국제학력평가, 공공·민간 교육지출
공공재정	재정수지, 정부부채, 사회적 공공지출, 조세수입
삶의 질	평균수명, 비만율, 문화·여가지출, 의료비지출

□ OECD의 국가별 행복 수준 평가지표는 소득수준 관련 지표들을 활용한 화폐적 측정과 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비화폐적 측정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 OECD 보고서인 『Going for Growth』에서는 GDP와 GNI를 활용하여 웰빙의 화폐적 측정을 시도하고 있음.

– 단,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GDP나 GNI이나, 삶의 질 수준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GDP나 GNI와 같은 총 개념보다 생산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재의 감모분을 감안한 NDP(Net Domestic Product) 또는 NNI(Net National Income) 등을 활용하기도 하며,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득이라기보다 ‘소비’에 있다는 입장에서 가계가처분 소득을 척도로 사용하기도 함(윤면식, 2006).

□ 특히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화폐적 측정과 비화폐적 측정을 혼용하여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는 지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표가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임.

– NIW 지수는 OECD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와 함께 2006년 6월 밀라노에서 개최한 국제워크숍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틀은 캐나다가 정부가 제안하였던 ‘캐나다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에 두고 있음.

– NIW에 활용되는 지표들은 크게 화폐 지표와 비화폐 지표로 대별될 수 있으며, 화폐 지표에는 1) 경제적 자원,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등에 대하여 5가지 지표가 포함되고, 비화폐 지표에는 3) 사회적 요인으로 15가지 지표가 포함되고, 그 외에 4) 환경 요인과 5)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이 속함.

〈표 5〉 OECD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 구성

지표	영역	항목	
화폐 지표	1) 경제적 자원	① 국가의 경제적자원: Net National Income ② 가구의 경제적 자원: 가구가처분소득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③ 여가시간 ④ 가구규모 ⑤ 소득분포	
비화폐 지표	3) 사회적 요인	⑥ 자립 (self-sufficiency)	(1) 고용율 (2) 비취업가구 인구비율 (3) 평균 교육년수 (4) 15세 학생의 평균 학업성취도
		⑦ 형평성 (equity)	(1) 소득불평등 (2) 상대 빈곤율 (3) 아동 빈곤율 (4) 성별 임금격차
		⑧ 건강 (health)	(1) 출생시 기대 수명 (2) 영아사망율 (3) 사고 혹은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잃은 생명의 잠재적 수명
		⑨ 사회적 연대 (social cohesion)	(1) 지역사회활동참여 (volunteering) (2) 자살율 (3) 감옥 수감자 비율 (4) 범죄피해율
	4) 환경		
5)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2. 개별 국가들의 행복지수 산출 동향

□ 국제기구들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정부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산출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음.

- 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분명하고 일관된 지표의 산출을 통해 각국의 복지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고 정책집행에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가. 캐나다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CIW 산출의 역사는 1999년 앳킨스 자선재단(ACF: Atkinson Charitable Fund)에서 시작되었음. ACF는 캐나다의 경제, 보건, 사회와 환경 분야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신뢰성있는 도구를 개발할 것을 주창함으로써 행복지수 개발을 시작하였음.

- 이후 여러 프로젝트와 연구사업을 거쳐 2004년 5월, 캐나다 국가연구개발 워킹그룹(pan-Canadia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ing Group)이 출범하여 매년 CIW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모임과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
- 흥미로운 점은 이 작업에 OECD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가 2005년부터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인데, 이후 JRC는 CIW가 기반이 된 OECD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수 산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임.
- CIW 지수의 초안은 2006년 마련되었으며, 14개 지역(community)에서 사전조사가 실시되었음.

□ CIW 지수는 생활수준과 여가시간의 활용, 건강, 생태계의 건전성, 교육, 지역사회 의 활력, 시민들의 참여 등 7개 영역의 35개 지표로 구성됨.

〈표 6〉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의 구성

Domain	Indicator
1. Living Standard (생활수준)	1) secure and meaningful employment (안정적 고용) 2) adequate income (적정 소득) 3) low-income (저임금 비율) 4) gap between rich and poor (빈부격차) 5) food security (식품안정성) 6) affordable housing (충분한 주택공급)
2. Time Allocation (여가시간사용)	1) balance between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 균형) 2) the capacity to make choices about the use of time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권) 3) the stress of overload (시간부족에 대한 스트레스)
3. Healthy Populations (건강)	1) self-rated health (자가진단 건강상태) 2) functional health (건강상태) 3) disability-adjusted life expectancy (건강수명) 4) infant mortality (영아사망률) 5) low birth weight (저체중 출생) 6) mortality and morbidity due to circulatory diseases, cancers, respiratory diseases, and diabetes (순환계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에 의한 이환과 사망)

Domain	Indicator
	7) rates of depression and suicide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 8) BMI (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 9) smoking (흡연) 10) physical activity (신체적 활동)
4. Ecosystem Health (생태계의 건전성)	1) good air and water quality (깨끗한 공기와 물) 2) healthy forests, soils and marine environment (건강한 숲, 토양, 해양환경) 3) greenhouse gas emissions (이산화탄소 배출량) 4) waste diversion (쓰레기 재활용) 5) environmental sustain ability (환경지속가능성)
5. Educated Populace (교육)	1) literacy (기초언어능력) 2) numeracy (기초수리계산력) 3) indicator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quality (교육적 성취와 질에 대한 지표)
6. Community Vitality (지역사회 활력)	1) safe communities (안전성) 2) cohesion (결속력) 3) equity (형평성) 4) diversity (다양성) 5) identity (정체성) 6) culture (문화) 7) arts and recreation (예술 및 여가활동)
7.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1) civic engagement (시민 참여)

나. 일본의 新국민생활지표

- 일본 정부에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하나의 지수로 제시하고자 시도한 것이 신국민생활지표임.
 - 이 지표는 일본에서 ‘풍요로움의 지표’라는 별칭으로 지칭되었으며, 경제기획 국민생활국의 주관으로 1992년부터 조사되었음.
 - 일본 정부의 ‘풍요로움’의 개념은 경제적인 만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풍요로움, 사회의 안전·안심, 다양한 가치관의 허용,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외국으로부터의 존중, 좋은 환경의 장기적 지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日本 經濟企劃廳, 1999).
- 신국민생활지표의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은 8개 활동영역과 4개 생활평가를 축으로 하여 세부지표들을 배치함(장영식, 2007).

- 활동영역: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 보건의료, 여가, 교육, 관계
- 생활평가: 안전·안심, 공정성, 자유, 쾌적

□ 이들 세부지표들 가운데 사회의 각 영역을 평가하거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추출한 후,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화지수를 산정함.

- 표준화지수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연도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연도의 변화율을 기준년(1990년)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함.
- 개별지표들 가운데 지표 수준의 상승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플러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지표는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며, 활동영역별 개별 지표의 표준화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함.

〈표 7〉 일본 신국민생활지표 체계표

활동영역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주거	위험·수리불능주택비율(-) 최저거주수준이상 주택비율 차가가임의 연수비(-) 차가다다미당 실질가임(-) 주택소유비율 공해고충처리건수(-) 형법범죄인식건수(-) 중요형법범죄 인지건수(-) 중요절도범 인지건수(-) 교통사고발생건수(-) 일반도로 보도설치율 건물화재건수(-) 주택임대대출 반환액비율(-) 쓰레기위생처리율 의료기관500m 미만 주택비율	주택취득연수배율(-) 토지자산격차 (지니계수)(-)	세대용 임대주택 착공비율 유도거주수준이상 주택비율	일조시간5시간이상 주택비율 1인당 다다미수 1주택당 부지면적 가까운 교통기관 1km 미만주택비율 1인당 공원면적 하수도 등 보급률 수세화율 자원재활용비율 1인당 쓰레기 배출량(-) 통근통학 평균시간(-) 일반도로 포장률
소비지출	1인당 가계소득 연간 수입(전세대) 소비자 물가지수 (종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입대비 저축비율 수입대비 부채비율(-) 생명보험 계약건수 개인 파산건수(-)	생활보호호세대비율(-) 소비자물가 지역격차 지수(-) 소득격차(지니계수)(-) 연간 수입 지니계수(-) 30대부터50대의 세대내 소득 격차 (지니계수)(-)	서비스 지출 비율 소매점수 (대형 소매점 제외) 대형 소매점 수 백화점 수 소비자 신용 잔고 현금 카드 발행매수 외식 지출 비율	택배 취급 개수 현금 자동지불기 설치 대수 통신판매 매상고 편의점 수 내구소비재 지출비율

활동영역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소비자위해정보비율(-)			
노동	실질임금(남여 평균) 실업률(-) 공공직업훈련시설수 근무연장·재고용 비율 전직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노동쟁해도수율(-) 단신부임비율(-) 남녀합계가사시간 고용인원의 과부족(-)	신체장애인비율 (취직자대비) 정신지체인비율 (취직자대비) 장애인비율 (취직인구당) 청년층의 고령층에 대한 구인격차비율(-) 기업간 임금비율 여성관리직 비율 여성취업률 중고령자 취업률 남아임금격차(-)	전직률(+) 유효구인배율 연차유급휴가취득일수 30-34세의 여성노동력(20-24세여성비) 유연시간적용자비율 개업건수 연장보육실시시설수(+) 0-1세아보육소재 소자수(+)	초근시간비율(-) 실노동시간수(-) 통근시간1시간이상 세대비율(-) 연휴2일체적용노동자비율 1인당 오피스 면적 평균월간출근일수(-) 남녀합계가사시간(-)
양육	영아사망률 (출생아수대비)(-) 보육소재적률 (3-5세인구비) 보육소정원수 (맞벌이가정대비) 1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지출비율(-) 장기결석률 (학교현오)(-) 고등학교등예의 진학률 자녀의 성인병(-) 소년범죄검거인원 (소년인구비)(-) 교내폭력건수(-) 나안시력 1.0 미만 자 비율(-) 연장보육실시시설수(+) 보도인원(-) 0-1세아 보육소재 소자수(+)	아동복지시설수 모자상담원 비율	유치원재적률 (3-5세인구비) 유치원정원수 (3-5세인구비) 고등학교수 (15-17세인구비) 1인당교육비 지출에 접하는 학습속 비용 등의 비율 (공립소중학교평균)(-) 교육비에의 지출비율(+)	아동관 수 (3-11세 인구비) 청소년교육시설수 아동생도1인당 교지면적
보건의료	평균여명(0세, 65세) 입원환자비율(-) 성인병 사망률(-) 보건의료비에의 지출비율(-) 일반병원병상수 응급고시병원수 의사수 간호사수 국민의료비중환자 비부담률 양호, 경비 노인홈 정원수 응급자동차 평균 수송시간(-) 차매성 노인 발생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신체장애인 갱생원호시설 정원수(신체장애인수철교부수비) 정신지체인원호시설 정원수 주간보호시설 이용상황(65세 이상 인구비) 주간보호시설 정원수(65세 이상 인구비) 노인보건시설정원수 특별양호노인홈정원수(65세 이상 인구비) 차액베드수 (총병상수비)(-)	유료노인홈정원수 (65세 이상인구비) 차액베드수 (총병상수비)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 (65세 이상 인구비) 노인가정봉사원이용상황 (65세 이상인구비) 신체장애인홈ヘル프과과견세대수(신체장애인수철교부수비) 단기보호시설이용상황 (65세 이상인구비) 단기보호시설베드수 (65세 이상인구비) 주간보호시설정원수 외상노인비율(제가)(-)
여가	해외여행사사고피해자수 (출국인수비)(-)	법인교제비/개인소비(-)	관광목적출국일본인수 교양오락비에의	취미오락 주 평균시간 자연공원면적비

활동영역	안전·안심	공정	자유	쾌적
	하계연속휴가 실시일수		지출비용 극장, 음악회장 등 수 스포츠 시설수 상설 영화관수 위성방송수신계약수 비디오대여점수 음식점수 공원유원지수 호텔어관객실수 신간서적발행종류수 렌트카 차량수 빠징고점수 공영경기시행단체수	이용원천수 스포츠 행동자율
교육	대학입학자수/진학희망고교 생도수 정시제고교수 (15세이상인구비)	육영회장학생채용수	대학원진학률 유학자수 (15세 이상 인구비) 상급학교 진학률 대학등진학률 상급학교 학생수 (인구총수비) 민간생애학습강좌 수강자 서적·잡지 소매점수 서적 등에의 지출비용 성인일반학습강좌수	도서관수 도서대출자수 박물관수 사회교육관계직원수 성인일반학습강좌수 학습연구시간
관계	이혼율(-) 유배우합계이혼율(-) 혼인율 미혼율(-) 고령자의 자녀와의 근주율	-	이혼율(+) 유배우합계이혼율(+) 미혼율(+) 교제비에의 지출비용 봉사적 활동시간 사회봉사활동행동자율 노인크립 가입률 청년해외협력대 참가자수 일일교류가능인구 (전국인구비) 국제결혼건수 현혈자수(15-64세인구비) 부인단체가입률	교제시간 공민관수 1인당 선택가능정보량 지역정보화지표 팩스콤 보급률

자료: 장영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2007.

다. 영국 지속가능 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지표	(Regional Indicator)	(National Headline Indicator)
경제 성장	1인당 총부가가치	1인당 GDP
투자	제조업 산출 대비 투자비용	GDP 대비 총 투자비용 및 사회간접자본투자비용
고용	근로가능연령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근로가능연령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빈곤 및 사회 배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구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전문직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구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전문직경제활동인구

지표	(Regional Indicator)	(National Headline Indicator)
	저소득 가구의 아동 비율	저소득 가구의 아동 비율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가구비율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독신 노인가구비율
교육	Level 2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에 있는 19세 비율	Level 2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에 있는 19세 비율
건강	출생시 기대여명	건강 기대여명
주택	‘적절한 주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주택 비율	‘적절한 주택’에서 주거하지 않은 가구 비율
범죄	영국 범죄조사비율차량을 이용한 절도 주거지에서의 강도 및 절도	차량을 이용한 절도 주거지에서의 강도 및 절도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	-	대기오염이 심한 날수
교통량	교통량	교통량
담수질	양질의 강 비율	양질의 강 비율
야생동물	농지와 산림 조류 지수	농지와 산림 조류 수
토지사용	개발 용지에 대한 주택건축 비율	개발 용지에 대한 주택건축 비율
폐기물	가정 폐기물 및 재활용	가정 및 전체 폐기물 관리

라.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Gross National Happiness)

□ 1998년부터 부탄 정부의 부탄 연구소(The Centre for Bhutan Studies)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민총행복지수(GNH)는 경제적인 고도성장이 아닌 전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 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행복지수라 할 수 있음.

-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탄 국민들을 '행복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2005년의 조사에서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가평가하는 국민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는 등 이른바 '부탄모델'로 불리는 부탄정부의 실험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독특하면서도 가치 있는 연구대상으로 평가 받고 있음.

〈표 8〉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세부지표 구성

영역	세부지표
정신적 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기도문 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karma) 횟수, 자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 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
생태 (ecology)	강의 오염, 토지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의 식목상태
건강 (health)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지난 30일간 건강한 일수, BMI, HIV/AIDS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교육 (education)	교육연수, 문자해독률, 지역의전설에 대한 지식
문화 (culture)	모국어 구사수준, 전통놀이 횟수,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지역의 가면과 춤에 대한 지식, 호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도, 절도에 대한 태도
삶의 수준 (living standard)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축제 기여도, 가옥의 시급한 유지보수
시간활용(time use)	근로시간, 수면시간
지역사회 활력 (community vitality)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간 이해심, 가족내 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수, 기부, 사회적 지지

□ 다른 후생복지 관련 지수들과 구별되는 GNH의 특징은 1인당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영적·종교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임.

— 삶의 질이란 결국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인식이 통합된 개념으로 본다면, 행복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한 GNH는 향후 행복 수준의 평가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신출 동향

□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래로 불가피하게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경제개발에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었음.

□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안정화된 1990년대 이후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여기에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이 실제로 인지하는 생활수준 간에 나타난 괴리현상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박대식, 2007).

□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후생복지 수준을 지표화하여 발표한 경우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그 대표적인 경우는 통계청이 분류·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 최초의 128개 지표로 공표된 이후 매년 작성되고 있는데, 매년 지표가 추가로 수록되어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는 13개 부문(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육,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정부·사회참여)의 489개로 확대되었음.

□ 조명한 등(1998)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1개 국가의 대학생 6,94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이를 삶의 질 수준으로 측정하였음.

- 조사 영역은 주관적 안녕감, 세부 영역(사회, 여가, 교육, 물질적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이상적인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 정서적 경험, 친숙도, 외향성 등이었음.

-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활용한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는 21.95 ± 2.27 점이었음.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중국(16.43)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준 국가는 네덜란드(26.84)로 나타났음. 한국은 18.72점으로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음.

-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는 또다른 척도인 D-T 척도(delight-terrible)를 활용한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네덜란드(5.59)였으며, 중국이 가장 낮은 점수(3.73)였음. 한국의 점수도 4.09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김명소 등(2006)은 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요인을 도출한 후, LISREL 모형을 이용하여 행복지수 산출 공식을 개발하였음.

- 한국인의 행복요인은 ① 경제력, ② 건강, ③ 외모, ④ 사회-정치-문화-환경, ⑤ 자녀의 바른 성장, ⑥ 부모 및 친지와의 원만한 관계, ⑦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⑧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⑨ 사회적 지위 및 인정, ⑩ 자기

수용감, ⑪ 긍정적 인생관, ⑫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⑬ 자립성, ⑭ 종교, ⑮ 사회봉사, ⑯ 여가 등 16가지 요소들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16개 요인을 ‘생존·관계·성장 욕구위계이론(ERG: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need theory)’에 따라 3대 영역(생존, 관계, 성장)으로 재분류함.

- 잠재변인을 행복으로, 측정변인을 16개 행복요소의 평균값을 적용한 LISREL 모형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text{행복} = 2.5 \times E(\text{생존}) + 2.5 \times R(\text{관계}) + 5.0 \times G(\text{성장})$$

- 행복지수 산출 공식을 통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57.71점(SD: 10.61)으로 나타남. 특히 3가지 영역에서는 관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김경동 등(2006)은 세계 주요 도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도시경쟁력과 행복의 수준을 조사하여 이를 종합적·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현재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대상 도시는 런던, 파리, 베를린, 밀라노, 뉴욕, 토론토, 동경, 북경, 스톡홀름, 서울 등 10개 도시이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다단계층화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총 10,11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 행복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1) 경제(직업선택 기회, 물가), 2) 문화와 교육환경, 3) 복지(복지제도, 복지시설, 양육시설, 소외계층 보호시설, 보건·복지환경), 4) 생태환경(수돗물, 공기오염), 5) 생활환경(교통, 공간확충, 편의시설), 6) 사회안전(밤에 거리다니기, 교통사고/재해 위험), 7) 도시행정(정보접근성, 민원업무, 행정의 투명성), 8) 공동체생활(이웃주민들과의 교류, 봉사활동) 등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로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 개인의 주관적 행복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음.

〈표 9〉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조사항목별 결과

(단위: 점)

항목	전체평균	최고	최저	서울
경제	40.68	50.57(동경)	34.05(뉴욕)	38.79
문화/교육	68.65	81.84(스톡홀름)	49.83(서울)	49.83
복지	55.38	68.75(파리)	32.04(서울)	32.04
사회안전	51.65	60.42(스톡홀름)	33.24(밀라노)	37.62
생태환경	46.64	63.37(스톡홀름)	28.64(서울)	28.64
생활환경	72.13	82.02(베를린)	55.50(서울)	55.50
도시행정	58.60	64.41(파리)	46.89(서울)	46.89
공동체생활	63.25	73.10(베를린)	44.08(서울)	44.08

자료: 김경동 외,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2006

- 영역별 조사결과는 통합지수화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적인 행복도를 단순히 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거주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하다’는 응답은 전체 도시 거주자들의 74.0%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스톡홀름이 87.8%로 가장 높았으나, 서울은 56.3%로 가장 낮았음.

□ 장영식 등(2007)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였음. 이를 위해 건강, GDP, 교육, 직업안전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지털기회 등 8개 분야별로 8개 지표를 선정하였음.

- 최종순위는 인자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중 제1인자 적재값을 기준으로 분야별 가중지수를 산출함. 계산된 가중치를 8개 지표값에 각각 곱하여 합산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국가별 순위를 비교하였음.

〈표 10〉 ‘삶의 질’ 지수 산출을 위한 분야별 선정지표 및 측정방법

분야	선정지표	측정방법
건강	건강수명	(해당국건강수명 - 최저치) / (최대치 - 최저치)
GDP	인당 GDP	$\log(\text{GDP}) - \log(100) / \log(40,000) - \log(100)$
교육	비문맹률, 취학률	성인비문맹지수 = 비문맹률 / 100 총취학률 = 총취학률 / 100 교육지수 = 2/3(성인비문맹지수) + 1/3(총 취학률지수)
직업안전성	실업률	(최대실업률 - 실업률) / 최대실업률
환경	CO2 배출량	(CO2최대배출량 - CO2배출량) / CO2최대배출량
가족생활	이혼율	(최대이혼률 - 이혼률) / 최대이혼률

분야	선정지표	측정방법
안전	고의적 살인빈도	(최대율 - 고의의 살인건수) / 최대율
디지털기회	전화·이동전화·인터넷 이용정도	인프라지수, 기회지수, 이용성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 - 인프라지수: 가구당 유선전화, 컴퓨터, 인터넷 설치비율 및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가입자 수 - 기회지수: 이동전화 보급률, 개인소득대비 인터넷요금 및 이동전화요금 - 이용성지수: 개인별 인터넷 이용률, 전체 인터넷 가입자에서 광대역 및 인터넷 가입자 비율 및 전체 무선인터넷 가입자에서 이동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비율

- 산출 결과는 <표 11>과 같음. 전체적인 삶의 질 수준은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17위를 차지하였음. 우리나라는 건강 및 GDP, 가족생활, 안전 등의 영역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안정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7위), 디지털기회지수에서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음.

<표 11> '삶의 질' 지수 산출 결과

지수	1위	우리나라
전 체	아이슬란드	17위
건강지수	일본	25위
GDP 지수	미국·노르웨이·룩셈부르크	23위
교육지수	아일랜드·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뉴질랜드	11위
직업안전성지수	아이슬란드	7위
환경지수	터키	17위
가족생활지수	터키	25위
안전지수	일본	22위
디지털기회지수	한국	1위

자료: 장영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김승권 등(2008)은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개별 행복지표의 가중치를 보면, 현재의 가족생활(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정도와 가족의 건강수

준이 높았음. 또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주관적인 건강수준 등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으나,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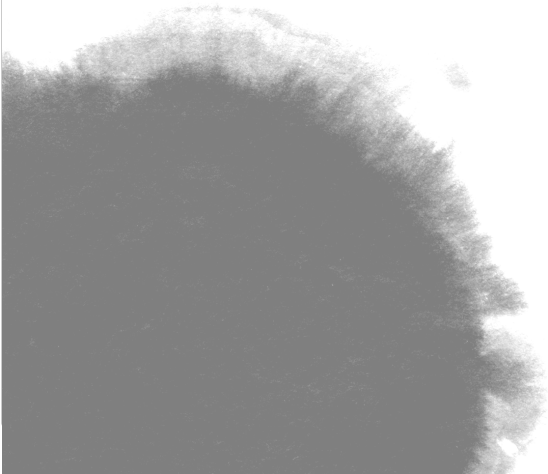
- 위의 가중치를 적용한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67.8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행복하다고 느끼나, 높은 행복감은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었음.

□ 국내외 행복지수 산출 사례의 시사점

-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에 활용하는 것은 이들 지표들이 해당 분야 또는 전체적인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지표 산출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것은 산출을 위해 이용된 개별 지표들이 적절히 잘 선택되었는지, 각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는 적절하여 전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국제기구와 외국의 행복지수들은 중점을 두는 영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여러 지표를 종합하는 지수가 있는 반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중요한 것은 활용한 지표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대표성있는 지표를 활용하였는가에 있으므로 활용한 지표에 대한 합리적 선정이 중요한 과정임.
- 또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시계열적으로 산출되기 보다는 횡단면적인 특성으로 산출되고 있음. 물론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과 평가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에서 산출된 행복지수의 경우 주관적인 요인이 강조된 경향이 있음. 이는 아직 외국에 비해 행복지수 산정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이나, 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의 보강과 국가간 비교 가능한 지표 개발 등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음.

03

연구방법



III. 연구방법

1. 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 OECD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

- OECD 국가들의 국민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NIW 지표를 사용함.
- OECD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그리고 화폐적 지표와 비화폐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로,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의 위치 파악과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 사회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구성을 지니고 있음.
- OECD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의 기본틀을 보완·활용하여 세부지표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에 적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OECD 국가 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정책의 계획과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데 유용함.
- NIW지표는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 개최한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안한 지표로서, 캐나다의 행복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지표임.
- 후생복지와 관련된 지표들은 화폐지표와 비화폐지표로 크게 대별되며, 화폐지표에는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에 연관된 요인을, 비화폐지표에는

사회적 요인 및 환경, 주관적 행복 등을 포함함.

- NIW 지표는 자료원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대별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객관적 지표에는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요인 등 객관적이고 양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이 속하게 되며, 주관적 지표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만족도가 속하게 됨.
- 전체적으로 NIW 지표는 ① 경제적 자원, ②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③ 자립, ④ 형평성, ⑤ 건강, ⑥ 사회적 연대, ⑦ 환경, ⑧ 주관적 행복 등 8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인에는 세부지표들이 존재함.
- 다만, 환경 관련 요인에는 세부지표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음.

〈표 12〉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의 구성

구분		요인		세부 지표
객관적 지표	화폐 지표	1) 경제적 자원		국가의 경제적자원: NNI
				가구의 경제적 자원: 가처분소득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여가시간
				가구규모
	비화폐 지표	3) 사회적 요인	① 자립 (self-sufficiency)	경제적 자원 배분의 불평등
				고용율
				미취업가구원의 비율
				평균 교육년수
			② 형평성 (equity)	15세 학생의 평균 학업성취도
				소득불평등
				상대 빈곤율
				이동 빈곤율
			③ 건강 (health)	성별 임금격차
				출생시 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율
④ 사회적연대 (social cohesion)	사고/질병으로 인한 잠재적 수명손실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살율			
	감옥수감자 비율			
4) 환 경		범죄피해율		
4) 환 경		-		
주관적 지표	5)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가.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1) NNI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적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1인당 GDP 또는 국내총생산임.

–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CGI) 및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등 한 국가의 경쟁력 상황과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알려주는 각종 지표에서 널리 활용되었음.

– 그러나 GDP는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production)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외로부터 유입된 순소득과 수출입 품목의 교역조건을 반영한 국민총소득(GNI)이 국민의 후생복지와 밀접한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윤면식, 2006)

– 아울러 GDP나 GNI와 같은 총개념보다는 국민의 생활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지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국민순생산인 NNI(Net National Income)이 후생복지 수준을 더 잘 반영한다는 지적이 있음(Boarini, 2006)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가 국민의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원으로서 NNI를 지표로 활용함.

– NNI의 경우 OECD가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는 National Accounts의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항목을 통해 산정 가능

– 다만 OECD의 NNI는 국가별 통화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PPPs)을 활용하여 US dollar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2) 가처분소득

□ GDP를 비롯하여 GNI나 NNI 모두 국가 전체적인 경제규모나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개인 또는 가구가 실제로 well being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

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불리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NIW 지표에 가처분소득을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안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1인당가처분소득(households'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 1인당최종가구소비(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per capita)
- 1인당실질가구소비('actual' household consumption per capita)

– 이 가운데 1인당가처분소득이 기본적으로 ‘소득’의 개념이라면, 최종가구소비와 실질가구소비는 ‘소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NIW에서는 가구가처분소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을 제한 후,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개념임.

– 가처분소득은 OECD Online National Accounts에 직접 제공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대안적으로 LIS(Luxembourg Income Survey)를 통한 국가별 가처분소득 실태자료를 활용함.

– NNI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통화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PPPs)을 활용하여 US dollar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3) 여가시간

□ OECD 국가들이 미국 대비 1인당 GDP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노동력 활용도(고용율), 일인당 노동시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well-being의 중요한 요소인 여가의 가치를 반영할 경우 몇몇 국가들의 경우 연간 1인당 GDP의 증가율의 상승이 나타남¹⁾.

- 여가의 가치를 시간당 임금으로 하고, 여가시간의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여가를 반영한” GDP의 연간 증가율이 1인당 GDP의 증가율

1) 여가시간의 가치를 가격과 양으로 환산하는 방법, 여가시간을 national accounts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Boarini et al.(2006:20,49) 참조

보다 평균 0.1% point에서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경우 0.2% point까지 높아짐.

- 또한, 여가의 가치를 시간당 GDP로 환산하거나 여가시간의 생산성을 반영한 명목 임금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0.2% point에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0.4%까지 높아짐.

□ 국가 간 여가시간 차이의 결정요인은 문화적 요인(Blanchard, 2004), 노동소득에 대한 높은 한계세율(Prescott, 2004), 시장실패²⁾(Alesina et al., 2005; Landers et al., 1996)와 같은 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제적 자원 수준을 반영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여가시간은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국제 시간사용 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에서는 표준화된 시간 분류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된 시간사용 자료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MTUS 자료로 유럽과 북미의 15개국 이상 국가들의 시간사용 자료를 담고 있음.

4) 가구규모

□ 기존의 1인당 소득은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well-being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한계점이 있음.

- 즉, 기존의 national accounts은 개별 가구의 소득을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합계해서 총 거주 인구로 나누어서 산정함으로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 소득은 균등화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가구규모가 평균보다 큰 국가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남.

- 가구규모 조정은 몇몇 국가들에서 중요하고, 장기간을 고려했을 때 더욱 큼(Boarini et al., 2006:24).

2) 여가소비에 대한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상회하는 노동시간을 가진다는 것.

- 따라서, 가구규모는 가구가처분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원 지표를 산정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연관요인으로 균등화된 가구가처분 소득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할 수 있음.

4) 경제적 자원 배분의 불평등

- 사회 정의 이론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측정에 있어서 소득계층에 따른 가중을 함으로써 분배의 불평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전통적인 GDP 측정은 개인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분위별 소득에 동일한 가중을 두나, 사회 정의 이론에서는 경제적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가중치를 줌.
- Kolm(1969)의 “equally-distributed income” 개념은 불평등도를 총량적인 소득에 반영하는 공식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측정됨.

$$W = \left[\frac{1}{N} \sum_{i=1}^N y_i^{1-\varepsilon} \right]^{\frac{1}{1-\varepsilon}}$$

y_i: i번째 분위 사람의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

ε: 불평등에 대한 반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예. 사회가 소득분포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정도)

-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체적인 소득수준의 증가와 전반적인 효율이 낮아지는 비용을 치루면서 좀 더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 사이에 대체관계가 있음을 인정함.
-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은 national account의 평균 가처분 소득을 적용하고, 이를 평균 가구원수로 조정함.
- 이는 불평등에 대한 반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반감계수(coefficients of aversion to inequality)가 큰 경우는 높은 소득에 적은 가중이 주어짐을 의미함³⁾.

3) 예를 들어, 0의 값은 각 분위에 동일하게 가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1 값은 총 소득의 증가는 각 분

-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의 증가율은 불평등 반감 정도에 대한 가정에 달려있음.
-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고려하는 것은 전통적인 소득 측정에 비해 well-being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각기 다른 사회에 퍼져있는 불평등에 대한 반감의 정도에 달려있음.
- OECD National Accounts와 OECD의 OECD questionnair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자료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음.

나. 사회적 요인

1) 자립(self-sufficiency)

- 자립 요인은 고용율, 비취업가구 인구비율(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인구의 비율), 교육연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라는 세부지표로 이루어짐.
 - 자립요인의 세부지표는 경제적 자원 요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적자원과 고용기회의 배분 정도 등을 포함함으로써 well-being 측정을 풍부하게 함.
 - Boarini et al.(2006)가 Society at a Glance 자료를 이용해 자립요인 세부지표와 1인당 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율과 25~64세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는 1인당 GDP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사회 내에 고용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예. 가구 수준에서 무직자수)와 15세 학생의 평균 성취도는 1인당 GDP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자립요인은 각각의 지표 성격에 따라 OECD Factbook, Society at a Glance, Education at a Glance,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를 통해 data를 수집할 수 있음.

위의 증가율의 평균에 상응하는데,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에 따라 가중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함. 즉, 최하위 분위의 10% 소득 증가는 최상위 분위의 10% 감소와 관련되어 평균적인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은 불변하며, 10점은 총량적인 소득의 증가는 분포의 첫 번째 분위의 증가에 따른.

2) 형평성(equity)

- 형평성 지표는 소득불평등, 상대적 빈곤율, 이동 빈곤율, 성별 임금격차라는 세부 지표로 이루어짐.
 - 형평성 지표에 속한 세부지표들은 한 국가의 well-being 수준에 영향을 주는 불평등 정도를 반영해줌으로써 경제적 자원 요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사회적 요인을 반영해줌.
-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 빈곤율, 성별 임금격차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각1인당 GDP와 각 세부지표의 변화의 상관관계 역시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지 않음⁴⁾ (Boarini et al., 2006).
 -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여성과 남성의 중위 전일제 평균 소득의 격차)는 1인당 GDP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일 수준의 1인당 GDP 국가들 사이에서 격차는 10%~40%의 범위를 보임(Boarini et al., 2006).
- 형평성 지표는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3) 건강(health)

- 건강지표는 건강수명, 기대수명, 영아사망율, 사망자의 잠재적 수명이라는 세부 지표로 이루어짐.
 -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국가의 경제적 자원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지표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한 국가의 well-being을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임.
 - 건강변수는 1인당 GDP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그러나 1인당

4) 빈곤율은 1인당 GDP 수준과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1인당 GDP와 빈곤선(poverty thresholds)과는 강한 관계를 보임.

GDP변화와 건강상황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음
(Boarini et al., 2006).

- OECD Health data, WHO World Health Report, Health at a Glance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4) 사회적 연대(social cohesion)

- 사회적 연대 지표는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살율, 감옥수감자 비율, 자살율이라는 세부 지표로 구성됨.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주관적 행복수준, 그리고 지역사회 well-being을 위한 사회적 관계와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의 순기능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념임.
 - 사회적 연대요인 중 지역사회 참여-지역사회 집단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 피해율, 감옥수감자 비율, 자살율은 1인당 GDP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음(Boarini et al., 2006).
- 사회적 연대 지표는 OECD Factbook, OECD Society at a Glance, Health data, UN의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다. 환경 요인

- OECD에서는 NIW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요인을 별도의 요인으로 상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의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NIW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의 CIW 및 OECD의 환경 관련 지표들에 따라 별도로 4가지 세부지표를 정하여 활용하였음(구체적인 지표는 ‘다. NIW 산정 최종 지표’ 참고)

라. 주관적 행복: 생활만족도

- 주관적인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well-being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실제 각종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
 - 연구결과에 의하면 높은 점수의 생활만족을 기록한 사람은 친지와 친구들에 의해서도 행복해 보인다는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더 긍정적인 생활 사건을 회상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Layard, 2005).
 - 다변량 분석에 의하면 서베이를 통해 측정된 생활만족이 수명과 질병(우울, 고립감, 자살), 지역사회 참여, 정치 활동, 이직, 결근 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함.
- OECD 국가 국민들의 생활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척도는 World Value Survey data를 활용할 수 있음.

마. NIW 산정 최종 지표 및 자료원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NIW 지표에서 제시된 세부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체(추가)지표를 사용하였음.
- 먼저 영역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 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환경 요인은 대기, 수질, 생활, 토양 환경을 대표하는 4개 지표를 선택해서 추가함.
 - 대기오염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 할 수 있음. 이 지표는 OECD의 'Environment at a Glance'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도 가장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 지표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대기오염의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활용의 측면에서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WHO의 삶의 질 척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행복한 지구 지수(HPI)'에서도 활용되었고, NIW 지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CIW 지표에서도 활용된 바 있음.

-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담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임. 그러나 이들 지표는 한 국가 내에서도 측정하는 지점과 측정시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에는 적당하지 않음.
 - 실제 행복 수준에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얼마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질과 관련한 지표로는 수질정화시설을 활용하는 인구(population connected to public water treatment plants)를 활용하기로 함.
-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토양환경과 관련해서는 농지면적당 농약사용량 지표를 선택하였음. 이들 지표들은 각각
 - 토양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과 농지면적당 농약사용량 지표를 선택해 각각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및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at a glance 자료를 활용함.

□ 다음으로, 형평성 요인에는 노인빈곤율 지표를 추가하였음.

- 노인 빈곤율은 각국의 인구집단별 빈곤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표로, 아동빈곤율과 함께 핵심 지표로 간주하고 있음.

□ data collection

- OECD 발표자료(OECD National Accounts,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OECD Factbook,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Health Data 등)를 기본 자료원으로 하되, OECD 발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해당국가 정부부처의 통계수치를 검색하여 활용함.
- 자료수집 연도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되, 2006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13〉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산정 최종 지표 및 자료원

범주	NIW 세부지표	대체(추가) 지표	최종지표	자료원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NNI		NNI	OECD National Accounts
	가구가처분소득		가구가처분소득(중위)	LIS
	여가시간		여가시간	MTUS Time use2007; HDR2007에서 재인용
	equally-distributed income		equally-distributed income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2002; Boarini 2006
사회적 요인 ① - 자립	고용율		고용율	OECD Factbook 2008
	미취업가구원 비율		미취업가구원 비율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학업성취도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6
사회적 요인 ② - 형평성	Gini 계수		Gini 계수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Growing Unequality? 2008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2008 Employment Outlook, Society at a Glance 2006
사회적 요인 ③ - 건강	출생시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OECD Health data 2008
	건강수명		건강수명	WHO World Health Report 2003
	영이사망율		영이사망율	OECD Health data 2008
	잠재적 수명손실		잠재적 수명손실	OECD Health at a Glance 2007
사회적 요인 ④ - 사회적 연대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원봉사참여율	OECD Factbook, 2009
	자살율		자살율	OECD Health data 2008
	감옥수감자 비율		감옥수감자 비율	OECD Society at a Glance 2006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율	UN,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2005
환경 요인		대기환경	1인당 CO2 배출량	IEA, CO2 Emissions 2007
		수질환경	population connected to public water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06

범주	NIW 세부지표	대체(추가) 지표	최종지표	자료원
			treatment plants(% of population)	
		생활환경	1인당 쓰레기배출량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06
		토양환경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at a glance 2008
주관적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WVS 2005, 1981-2000

2. 국가별 순위산정 방법

가. normalising

□ 앞서 제시한 지표들은 well-being의 중요한 차원이지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종합 척도는 아님.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normalising & aggregating임.

□ normalising은 상이하게 표현된 단위⁵⁾와 상이한 간격⁶⁾을 표준화하는 방법임.

– “re-scaling” technique으로, 개별 지표의 값은 표본의 극단치로부터의 거리로 표시됨.

- 표본 중 최상의 혹은 최악의 국가 대비 값으로 함⁷⁾.
- 각 국가의 특정 지표의 수치를 전체 국가 중 최소값을 제하고 이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함.
-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5) 예를 들어 달러, 년수, 점수, 특정 경험을 한 인구비율

6) 범죄율과 같은 unbounded 척도와 빈곤율 혹은 실업율과 같은 bounded 척도

7) 국가들의 평균치 대비 변수값으로 하는 방법도 있음.

$$Z_{ij} = \frac{X_i - \min(X_i)}{\max(X_i) - \min(X_i)}$$

i : 지표 j : 국가

$\max(X_i)$: 해당 지표중 최대값

$\min(X_i)$: 해당 지표중 최소값

- 빈곤율, 범죄피해율과 같은 행복 수준에 역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의 경우는 순기능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준화함.

$$Z_{ij} = \frac{\max(X_i) - X_i}{\max(X_i) - \min(X_i)}$$

i : 지표 j : 국가

$\max(X_i)$: 해당 지표중 최대값

$\min(X_i)$: 해당 지표중 최소값

- 개별 지표의 값을 최상 혹은 최악의 국가 대비 값으로 하는 방법은 특이값(outlier)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

나. aggregation(weighting)

- aggregation은 빈약하나 의미있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관련 지표들을 단일한 종합 지표로 aggregation하는 것임(Hoffman et al., 2005).
 - 각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aggregation하는 방법과 지표별 상이한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있음⁸⁾.
 - 본 연구에서는 지표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함.
 -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각 범주별, 지표별로 행복 수준을 나타내는 데 중요도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함.
 - 7개 범주별 국가 순위를 산정하기 위한 가중치와 종합지표(composite

8) 지표별로 동일가중치를 준 결과는 부록 참조

index) 산정을 위한 7개 범주 가중치는 전문가 이메일 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응답대상자인 전문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 명단을 활용 보건 의료, 건강증진, 기초보장, 사회보험, 저출산·고령화, 복지서비스 6개 분야에 각 9명씩 54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발송함.
- 발송 설문지는 7개 범주 내 세부지표의 가중치와 7개 범주의 가중치 각각을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부록 참조).

– 전문가 이메일조사 결과 응답률은 55.6%로 31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음.

〈표 14〉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빈도	비율
분야	보건의료	4	12.9
	건강증진	7	22.6
	기초보장	7	22.6
	사회보험	2	6.5
	저출산·고령화	7	22.6
	복지서비스	4	12.9
	계	31	100.0
종사기관	대학	22	71.0
	연구 기관	7	22.6
	정부 부처	1	3.2
	기타1)	1	3.2
	계	31	100.0

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메일 조사 결과 각 범주내 세부지표별, 범주별 가중치 평균값은 <표 15> 및 <표 16>과 같음.

- 각 범주 내 세부지표별, 범주별 가중치는 각각 합이 1이 되도록 부여함.

〈표 15〉 세부지표별 가중치

	세부지표	가중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NNI	0.270
	가처분소득	0.270
	여가시간	0.231
	equally-distributed income	0.229
	계	1.000
사회적 요인 ① - 자립	고용율	0.419
	미취업가구원 비율	0.207
	평균 교육년수	0.202
	평균 학업성취도	0.172
	계	1.000
사회적 요인 ② - 형평성	Gini 계수	0.272
	상대빈곤율	0.246
	아동빈곤율	0.163
	노인빈곤율	0.173
	성별임금격차	0.146
계	1.000	
사회적 요인 ③ - 건강	출생시 기대수명	0.242
	건강수명	0.384
	영아사망율	0.212
	잠재적 수명손실	0.162
	계	1.000
사회적 요인 ④- 사회적 연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0.258
	자살율	0.306
	감옥수감자 비율	0.172
	범죄피해율	0.264
	계	1.000
환경 요인	1인당 CO2 배출량	0.307
	정수시설 활용 인구	0.222
	1인당 쓰레기배출량	0.257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0.213
	계	1.000
주관적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1.000
	계	1.000

〈표 16〉 범주별 가중치

범주	가중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0.178
사회적 요인 ① - 자립	0.132
사회적 요인 ② - 형평성	0.119
사회적 요인 ③ - 건강	0.179
사회적 요인 ④- 사회적 연대	0.115
환경 요인	0.133
주관적 생활만족도	0.143
계	1.000

- 각 부분의 국내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 산정방법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전문가의 의견은 국내 부문간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OECD 국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남을 밝혀둠.

다. 범주별 순위산정

- normalizing 한 값에 지표별 가중치의 평균값을 곱한 후, 범주에 해당하는 결과값들을 합산하여 순위 산정

$$y_i = \sum x_i * w_i$$

y: 범주별 최종값

x: 각 지표별 해당국가의 normalizing 값

w: 각 지표별 가중치

- 예를 들어,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의 OECD 국가 순위를 산정 할 때, A국가의 값은 {NNI 지표(표준화된) × 0.270} + {가처분소득 지표(표준화된) × 0.270} + {여가시간 지표(표준화된) × 0.231} + {equally-distributed income(표준화된) × 0.229} 로 산정됨.

라. 종합순위 산정

□ normalizing 한 값을 지표별 가중치 값과 범주별 가중치 값을 곱한 후, 모든 지표의 결과값을 합산하여 산정

$$y_i = \sum x_i * w_i * w'_i$$

y: 최종값

x: 각 지표별 해당국가의 normalizing 값

w: 각 지표별 가중치

w': 각 범주별 가중치

— 예를 들어, OECD 국가 종합순위를 산정 할 때, A국가의 값은 위의 예에서 산정된 각 범주별 변수에 범주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함.

- A국가의 종합점수 =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점수(표준화된) × 0.178} + {사회적 요인①-자립 점수(표준화된) × 0.132} + {사회적 요인②-형평성 점수(표준화된) × 0.119} + {사회적 요인③-건강 점수(표준화된) × 0.179} + {사회적 요인④-사회적 연대 점수(표준화된) × 0.115} + {환경 요인 점수(표준화된) × 0.133} + {주관적 생활만족도 점수(표준화된) × 0.143}

마. 결측값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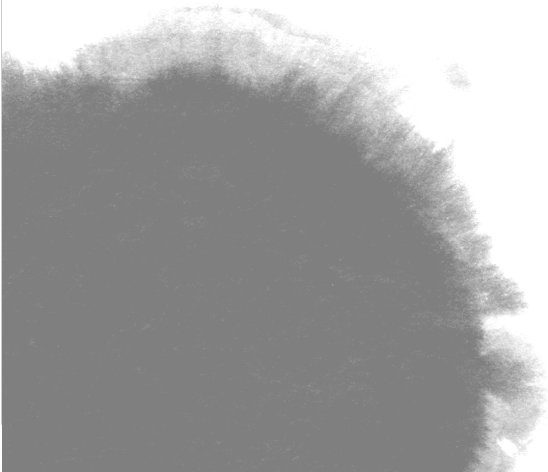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가 없는 국가의 경우 missing 값 그대로 활용함.

- 특정 세부지표에서 특정 국가의 data가 결측치인 경우에는 자료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등 수치를 보간하는 방법이 있음.
- 시계열 자료에서 특정 국가의 특정 연도 데이터가 빠졌을 경우 이전 연도와 다음 연도의 평균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횡단면 자료에서 특정 값을 부여하는 것은 점수 및 순위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측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종합지표를 산정함.

- weighting은 결측값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범주)만 가지고 가중치가 1이 되도록 조정하여 나머지 지표의 값만으로 가지고 점수가 산정되도록 함.

04

행복지수 산정결과



IV. 행복지수 산정결과

1. OECD 국가의 종합 순위 및 점수

- 7개 범주를 종합한 종합순위는 스위스가 1위, 터키가 30위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5위임.
- 스위스가 0.74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에서 멕시코, 헝가리, 터키가 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터키는 29위인 헝가리와 0.1점 이상의 차이를 나타냄.
 - 한국은 24위 포르투갈과 0.05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25위를 기록함.

〈표 17〉 OECD 국가 종합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스위스	0.747	16	프랑스	0.626
2	룩셈부르크	0.745	17	호주	0.618
3	노르웨이	0.736	18	일본	0.617
4	스웨덴	0.734	19	벨기에	0.599
5	오스트리아	0.712	20	미국	0.588
6	캐나다	0.697	21	이탈리아	0.580
7	덴마크	0.692	22	그리스	0.556
8	아이슬란드	0.692	23	체코	0.548
9	핀란드	0.687	24	포르투갈	0.525
10	네덜란드	0.669	25	한국	0.475
11	영국	0.666	26	폴란드	0.450
12	뉴질랜드	0.649	27	슬로바키아	0.427
13	아일랜드	0.646	28	멕시코	0.430
14	독일	0.638	29	헝가리	0.404
15	스페인	0.633	30	터키	0.310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2. OECD 국가의 범주별 순위 및 점수

□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범주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22위를 차지함.

- 룩셈부르크는 1.000 만점의 0.931로 1위, 미국이 0.793으로 1위와 0.1포인트 넘는 차이로 2위,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3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이 근소한 차이로 각각 4, 5, 6, 7위를 차지함.
-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범주의 하위권은 슬로바키아, 멕시코, 터키로 각각 0.129, 0.062, 0.000로 다른 범주의 하위권 점수와 비교해 낮은 점수를 나타냄.

〈표 18〉 OECD 국가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룩셈부르크	0.931	16	스페인	0.461
2	미국	0.793	17	프랑스	0.459
3	노르웨이	0.697	18	네덜란드	0.456
4	영국	0.587	19	일본	0.454
5	스위스	0.578	20	덴마크	0.416
6	캐나다	0.576	21	그리스	0.395
7	아일랜드	0.575	22	한국	0.373
8	독일	0.567	23	뉴질랜드	0.308
9	오스트리아	0.535	24	헝가리	0.293
10	스웨덴	0.492	25	포르투갈	0.269
11	핀란드	0.490	26	폴란드	0.247
12	호주	0.489	27	체코	0.200
13	아이슬란드	0.485	28	슬로바키아	0.129
14	이탈리아	0.474	29	멕시코	0.062
15	벨기에	0.470	30	터키	0.000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 자립 범주에서는 스위스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15위를 차지함.

- 스위스는 1.000 만점의 0.821로 1위, 다음으로 캐나다, 아이슬란드, 덴마크가 크지 않은 차이로 각각 2,3,4위를 차지함.

- 자립 범주의 하위권은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로 각각 0.364, 0.324, 0.208의 점수를 나타냄.
- 한국은 자립에서 0.605로 7개 범주 중 가장 높은 순위, 15위를 차지함.

〈표 19〉 OECD 국가의 자립 범주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스위스	0.821	16	네덜란드	0.595
2	캐나다	0.773	17	영국	0.593
3	아이슬란드	0.751	18	체코	0.540
4	덴마크	0.741	19	독일	0.531
5	일본	0.739	20	포르투갈	0.485
6	스웨덴	0.729	21	슬로바키아	0.480
7	미국	0.721	22	벨기에	0.480
8	뉴질랜드	0.707	23	프랑스	0.473
9	노르웨이	0.694	24	스페인	0.466
10	핀란드	0.656	25	그리스	0.440
11	아일랜드	0.628	26	헝가리	0.382
12	호주	0.613	27	멕시코	0.367
13	룩셈부르크	0.609	28	이탈리아	0.364
14	오스트리아	0.608	29	폴란드	0.324
15	한국	0.605	30	터키	0.208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 형평성 범주에서는 덴마크가 1위, 멕시코가 30위, 한국은 27위를 차지함.

- 덴마크는 1.000 만점의 0.952로 1위, 스웨덴이 0.943으로 1위와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2위, 다음으로 노르웨이, 체코, 프랑스 순으로 각각 3, 4, 5위를 차지함.
- 형평성 범주의 하위권은 미국, 터키, 멕시코로 각각 0.331, 0.217, 0.101의 점수를 나타냄.
- 한국은 형평성 범주에서 0.361으로 27위를 차지함.

〈표 20〉 OECD 국가의 형평성 범주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덴마크	0.952	16	뉴질랜드	0.651
2	스웨덴	0.943	17	독일	0.618
3	노르웨이	0.858	18	캐나다	0.605
4	체코	0.846	19	호주	0.597
5	프랑스	0.834	20	그리스	0.579
6	아이슬란드	0.833	21	이탈리아	0.573
7	헝가리	0.823	22	스페인	0.548
8	핀란드	0.814	23	폴란드	0.507
9	룩셈부르크	0.813	24	포르투갈	0.461
10	슬로바키아	0.799	25	아일랜드	0.447
11	벨기에	0.791	26	일본	0.440
12	네덜란드	0.784	27	한국	0.361
13	오스트리아	0.776	28	미국	0.331
14	스위스	0.710	29	터키	0.217
15	영국	0.688	30	멕시코	0.101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 건강 범주에서는 일본이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23위를 차지함.

- 일본은 1.000 만점의 0.985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1위,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함.
- 건강 범주의 하위권은 헝가리, 멕시코, 터키로 각각 0.291, 0.283, 0.000의 점수를 나타냄.
- 한국은 건강 범주에서 0.629으로 23위를 차지함.

〈표 21〉 OECD 국가의 건강 범주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일본	0.985	16	핀란드	0.755
2	아이슬란드	0.908	17	벨기에	0.746
3	스웨덴	0.894	18	아일랜드	0.736
4	스위스	0.890	19	영국	0.729
5	스페인	0.851	20	뉴질랜드	0.728
6	호주	0.845	21	덴마크	0.684
7	노르웨이	0.832	22	포르투갈	0.663
8	이탈리아	0.832	23	한국	0.629
9	프랑스	0.808	24	체코	0.593
10	독일	0.796	25	미국	0.579
11	캐나다	0.795	26	폴란드	0.407
12	룩셈부르크	0.789	27	슬로바키아	0.383
13	오스트리아	0.783	28	헝가리	0.291
14	네덜란드	0.783	29	멕시코	0.283
15	그리스	0.768	30	터키	0.000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 다음으로 사회적 연대 범주에서는 스페인이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26위를 차지함.

- 스페인은 1.000 만점의 0.722라는 점수로 1위, 다음으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가 각각 2,3,4위를 차지함.
- 벨기에, 헝가리, 터키는 각각 0.425, 0.395, 0.349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사회적 연대 범주의 하위권을 차지함.
- 한국은 사회적 연대 범주에서 0.487으로 26위를 차지함.

〈표 22〉 OECD 국가의 사회적 연대 범주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스페인	0.722	16	핀란드	0.567
2	이탈리아	0.720	17	스위스	0.563
3	룩셈부르크	0.719	18	뉴질랜드	0.556
4	노르웨이	0.701	19	미국	0.536
5	오스트리아	0.688	20	멕시코	0.511
6	호주	0.681	21	체코	0.497
7	그리스	0.671	22	스웨덴	0.497
8	캐나다	0.668	23	아이슬란드	0.497
9	독일	0.660	24	슬로바키아	0.492
10	포르투갈	0.640	25	덴마크	0.491
11	네덜란드	0.639	26	한국	0.487
12	프랑스	0.639	27	폴란드	0.434
13	일본	0.587	28	벨기에	0.425
14	영국	0.582	29	헝가리	0.395
15	아일랜드	0.576	30	터키	0.349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 환경 범주에서는 스웨덴이 1위, 미국 30위, 한국은 23위를 차지함.

- 스웨덴은 1.000 만점의 0.794, 비교적 낮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폴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가 근소한 차이로 각각 2,3,4위를 차지함.
- 호주, 룩셈부르크, 미국으로 각각 0.453, 0.421, 0.417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환경 범주의 하위권을 차지함.
- 한국은 환경 분야에서 0.597으로 23위를 차지함.

〈표 23〉 환경 요인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스웨덴	0.794	16	포르투갈	0.677
2	폴란드	0.791	17	그리스	0.663
3	뉴질랜드	0.785	18	아이슬란드	0.660
4	슬로바키아	0.758	19	네덜란드	0.644
5	체코	0.753	20	덴마크	0.633
6	멕시코	0.725	21	캐나다	0.619
7	스위스	0.724	22	이탈리아	0.598
8	스페인	0.724	23	한국	0.597
9	영국	0.724	24	노르웨이	0.586
10	프랑스	0.719	25	벨기에	0.530
11	핀란드	0.711	26	아일랜드	0.525
12	독일	0.709	27	일본	0.518
13	헝가리	0.705	28	호주	0.453
14	오스트리아	0.701	29	룩셈부르크	0.421
15	터키	0.690	30	미국	0.417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 마지막으로 유일한 주관적 지표인 생활만족 범주에서는 덴마크가 1위, 헝가리가 28위, 한국은 26위를 차지함.

- 덴마크는 1.000점⁹⁾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가 각각 2,3,4위를 차지함.
- 한국,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각각 0.259, 0.131, 0.000이라는 점수로 생활만족 범주의 하위권을 차지함.
- 한국은 생활만족 범주에서 0.259으로 26위를 차지함.

9) 생활만족 범주는 단일 지표로 이루어진 범주이므로 1위 국가의 점수는 normalization의 최대값인 1, 28위 국가의 점수는 최소값이 0을 나타냄.

〈표 24〉 생활만족도 순위 및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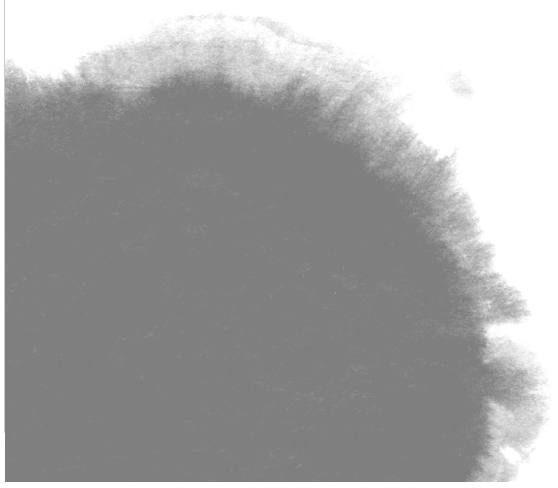
순위	국가	점수 ¹⁾	순위	국가	점수 ¹⁾
1	덴마크	1.000	16	미국	0.640
2	멕시코	0.995	17	스페인	0.640
3	아일랜드	0.970	18	호주	0.623
4	오스트리아	0.913	19	독일	0.563
5	스위스	0.908	20	체코	0.535
6	뉴질랜드	0.863	21	폴란드	0.522
7	룩셈부르크	0.855	22	일본	0.510
8	핀란드	0.841	23	프랑스	0.478
9	캐나다	0.827	24	이탈리아	0.469
10	네덜란드	0.810	25	그리스	0.385
11	스웨덴	0.803	26	한국	0.259
12	노르웨이	0.771	27	슬로바키아	0.131
13	영국	0.747	28	헝가리	0.000
14	벨기에	0.733	29	아이슬란드	-2)
15	터키	0.693	30	포르투갈	-2)

주: 1) 해당 점수는 normalizing, we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지님.

2) 생활만족 범주는 단일 지표의 범주로 해당국의 지표값이 결측값 처리가 되어 해당값이 순위산정에서 제외됨.

05

결론



V. 결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정한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wellbeing index)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종합)는 2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가구가처분 소득 (NNI)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자원 요인은 한국은 22위 수준이었고, 고용과 교육관련 사회적 요인으로는 15위, 소득재분배 및 빈곤율을 반영한 형평성 측면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27위, 기대수명 등 건강요인으로는 23위, 자살율 등을 반영한 사회적 연대 요인은 24위, 수질 등 환경요인은 23위를, 주관적 만족도 수준은 26위를 기록함.
 - 고용과 교육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소득 불평등도를 반영한 형평성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이번에 산정한 행복지수는 주관적 요인의 비중보다는 객관적인 요인의 비중이 크게 잡혔기 때문에 주관적인 행복(happiness)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비교대상 국가들이 경제 선진국인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지수의 순위가 전세계 행복지수의 순위라고는 할 수 없음.
 - 또한 종합적 행복지수는 각 항목별 지수를 가중 평균하였기 때문에 가중 평균 자체에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관련 전문가 31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로 결정).
 - 따라서 종합적 행복지수 자체보다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순위가 중요함.

- 각년도 지수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지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도 중요함.
- 행복지수의 산정의 의의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에 부족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행복지수의 산정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교육 고용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모자람이 없는 반면에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등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구권에 속했던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서구 및 북구 국가들과는 다소의 격차가 존재함으로 확인함.
 - 각 요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위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음.
- 이번에 산정된 행복지수의 국가별 순위는 기존의 UNDP에서 산정한 인력개발지수(HDI)의 2008년, 2009년 순위인 26위와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원에서 산정한 행복지수가 HDI가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소 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정된 본 행복지수는 보다 높은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국제적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행복지수의 산정은 일회성 연구의 범위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년 혹은 격년), 지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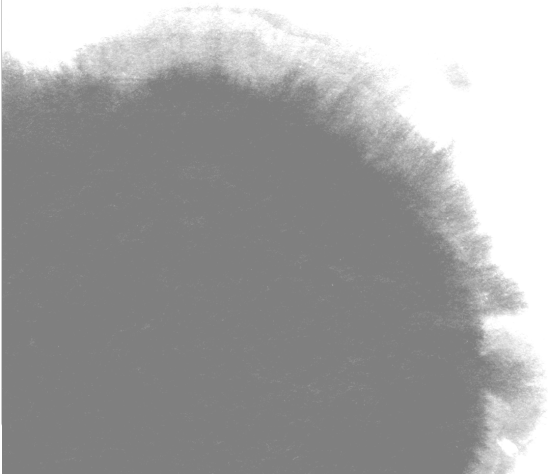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김경동·김영태·김 욱, 『세계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복지재단, 2006.
- 김명소·한영석,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제7권제2호, p.1-38, 2006.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현철·김세주·최낙경, 「뇌졸중 후 삶의 질에 관한 추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1권제4호, p.681-692, 2002.
- 박대식·마상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제30권제4호, p.31-55, 2007.
- 박이진·전양환·한상익·김진조·박승만, 「위암 수술 환자에서의 삶의 질-WHOQOL BREF의 타당도 및 유용성」, 『대한위암학회지』 제4권제4호, p.263-267, 2004.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각 년도
- 양종철·정웅기, 「방사선 치료 중인 암환자의 심리와 삶의 질」,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제22권제4호, p.271-279, 2004.
- 왕윤중·신동화·이형근,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윤면식, 「‘행복’을 위한 고민, ‘웰빙’ 측정하기」, 『나라경제』 2006년 10월호, p.54-57
- 이현재,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의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평가」, 『산업경영연구』 제29권제5호, p.227-244, 2006.
- 장영식,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장영식·고경환·손창균·이수현,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조명환·차경호,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8집, 1998.
- 중앙일보, 『전국 74개 시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분석』, 1995·1997.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년도
- 한성덕, 「‘삶의 질’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집제3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2007.
- Andrew Sharpe, *A Survey of Indicators of Economic and Social Well Being*, 1999.
- Boarini R.·Johansson A., *Alternative Measures of Well-Being*, OECD, 2006.
- Lars Osberg·Andrew Sharpe,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3), p.291-316, 2002.
- New Economic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an index of human well-being and environmental impact*, 2006.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06.
-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4.
- OECD, *Health at a Glance*, 2007.
- OECD, *Health Data*, 2008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8.
- OECD, *OECD Factbook*, 2007·2008.
-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6*, 2007.
- OECD, *Society at a Glance*, 2007.
- The WHOQOL Group,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WHOQOL)*, WHO, 1998.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8.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Criminal Victimiz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2005.
- WHO, *World Health Report*, 2007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
- 日本 經濟企劃廳, 新國民生活指標, 1999.
- <http://www.atkinsonfoundation.ca/ciw>
- <http://grossnationalhappiness.com/>

부 록



부록

[부록 1]

Well being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과 well bein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여 well-being 수준을 측정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 개최한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안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표들의 국가별 자료는 수집되었으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다음은 well-being 관련 요인들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각 요인들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주신다면 어느 항목에 보다 많은 비중치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적 자원 관련 요인

항 목	비중
○ 국민순생산 (NNI: Net National Incom)	_____ %
○ 일인당 최종가구소비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per capita)	_____ %
○ 여가시간 (leisure time)	_____ %
○ 자원배분의 불평등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_____ %
합 계	100%

2) 자립(self-sufficiency)

항 목	비중
○ 고용율 (employment rates)	_____ %
○ 미취업 가구원비율 (people in jobless households)	_____ %
○ 평균 교육연수 (average years of schooling)	_____ %
○ 학업성취도 (average student performance)	_____ %
합 계	100%

3) 형평성(equity)

항 목	비중
○ 소득불평등 (income inequality)	_____ %
○ 상대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_____ %
○ 아동 빈곤율 (poverty rate-children)	_____ %
○ 노인 빈곤율 (poverty rate-elderly)	_____ %
○ 성별 임금격차 (gender wage gap)	_____ %
합 계	100%

4) 건강(health)

항 목	비중
○ 출생시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birth))	_____ %
○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_____ %
○ 영아사망율 (infant mortality)	_____ %
○ 잠재적 수명손실 (potential number of year lost)	_____ %
합 계	100%

5) 사회적 연대(social cohesion)

항 목	비중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volunteering)	_____ %
○ 자살율 (suicide)	_____ %
○ 감옥수감자 비율 (prison population)	_____ %
○ 범죄피해율 (victimisation rate)	_____ %
합 계	100%

6) 환경(environment)

항 목	비중
○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emission)	_____ %
○ 황화합물 배출량 (sulphur oxide emission)	_____ %
○ 1인당 쓰레기 배출량 (waste generation)	_____ %
○ 경작지 km ² 당 농약사용량 (consumption of pesticides per km ² of agricultural land)	_____ %
합 계	100%

2. well-being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앞서 분류한 6가지 요인들에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더하여 모두 7가지 요인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주신다면 어느 요인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인	비중
1) 경제적 자원 관련 요인(economic resource)	_____ %
2) 자립(self-sufficiency)	_____ %
3) 형평성(equity)	_____ %
4) 건강(health)	_____ %
5) 사회적 연대(social cohesion)	_____ %
6) 환경(environment)	_____ %
7) 주관적 생활만족도	_____ %
합 계	100%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수당을 드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함께 기록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계좌번호: () 은행 _____

[부록 2] OECD 국가 행복(Well being)지수 산정 원자료

국가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NNI	가구가처분소득 (균등화된 중위소득)	여가시간(분)	equally distributed income(epsilon=1)
Australia	26852	19905		20833
Austria	29950	19152		24583
Belgium	28695	17398	296	
Canada	31827	19956	338	19167
Czech Republic	16796	10613		11250
Denmark	29304	16751		16667
Finland	27669	16105	348	14583
France	27599	17775	249	22500
Germany	27120	18122	348	21875
Greece	23790	19025		14688
Hungary	15802	9453	310	11050
Iceland	28732	21267		
Ireland	31093	18157	351	
Italy	24096	17076	292	21250
Luxembourg	66783	27331		
Maxico	9268	8109	169	7500
Netherland	31215	17019		19000
New Zealand	19714	15258		13750
Norway	45161	20373	375	21000
Poland	11694	8986	298	10000
Portugal	16982	13167		14375
Slovak Republic	13592	9961		
Spain	24230	16741	304	18333
Sweden	30332	15959	326	16667
Switzerland	31907	21779		24000
Turkey	8210	5821		3333
United Kingdom	29756	20136	327	23125
USA	38577	30767	306	32500
Japan	25440	17701		21300
Korea	19752	12061	318	

국가	사회적 요인①-지립			
	고용율	미취업 가구원비율	평균교육연수	평균학업성취도
Australia	72.2	13.4	12.6	520
Austria	70.2	9.4	12	502
Belgium	60.4		11.3	510
Canada	72.9	5.5	13.2	529
Czech Republic	65.3	11.7	12.5	502
Denmark	76.9	8.7	13.4	501
Finland	68.9	7.3	11.2	553
France	62.3	11.1	11.6	493
Germany	67.2	16.1	13.4	505
Greece	61	8.3	10.9	464
Hungary	57.3	13.8	11.7	492
Iceland	85.3		10.5	494
Ireland	68.1	9.6	13	509
Italy	58.4	9.9	10.1	469
Luxembourg	63.6	6.6	13.3	485
Maxico	61	3.6	8.8	409
Netherland	72.4	11.3	11.2	521
New Zealand	75.2	9.6	12.6	524
Norway	75.5	11	13.9	487
Poland	54.5	16.5	11.8	500
Portugal	67.9	4.8	8.5	471
Slovak Republic	59.4		12.5	482
Spain	65.7		10.6	476
Sweden	74.5	6.1	12.6	504
Switzerland	77.9	4.1	13	514
Turkey	45.9	7.3	9.6	432
United Kingdom	72.5	13.5	12.6	502
USA	72	4.9	13.3	482
Japan	70	2.8	12.4	517
Korea	63.8		12	542

국가	사회적 요인②-형평성				
	Gini 계수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	아동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	성별임금격차
Australia	0.301	12.393	11.79	26.94	14.4
Austria	0.265	6.617	6.17	7.50	32.9
Belgium	0.271	8.794	9.97	12.82	9.3
Canada	0.317	12.048	15.06	5.87	22.6
Czech Republic	0.268	5.830	10.27	2.26	18.6
Denmark	0.232	5.280	2.74	10.03	12.3
Finland	0.269	7.330	4.17	12.72	20.1
France	0.281	7.091	7.64	8.79	11.7
Germany	0.298	11.040	16.29	8.51	24.1
Greece	0.321	12.613	13.23	22.66	13.8
Hungary	0.291	7.136	8.72	4.74	13.2
Iceland	0.280	7.118	8.25	4.98	
Ireland	0.328	14.786	16.30	30.57	19.7
Italy	0.352	11.400	15.50	12.80	17.1
Luxembourg	0.258	8.100	12.39	3.09	
Maxico	0.474	18.420	22.16	28.03	
Netherland	0.271	7.673	11.53	2.12	21.7
New Zealand	0.335	10.800	15.00	1.53	17.4
Norway	0.276	6.800	4.60	9.06	
Poland	0.372	14.600	21.50	4.80	11.0
Portugal	0.416	12.870	16.55	16.62	14.7
Slovak Republic	0.268	8.120	10.93	5.93	
Spain	0.319	14.100	17.30	16.62	13.6
Sweden	0.234	5.342	3.97	6.22	14.8
Switzerland	0.276	8.690	9.43	17.56	22.6
Turkey	0.430	17.530	24.59	15.09	
United Kingdom	0.335	8.250	10.08	10.32	20.0
USA	0.381	17.132	20.59	23.56	21.6
Japan	0.321	14.932	13.69	21.97	33.9
Korea	0.312	14.600	10.20	45.13	39.8

국가	사회적 요인③-건강			
	출생시 기대수명	건강수명	영아사망율	잠재적 수명손실
Australia	81.1	72.6	4.7	3228
Austria	79.9	71.4	3.6	3499
Belgium	79.5	71.1	3.7	3974
Canada	80.4	72	5.4	3487
Czech Republic	76.7	68.4	3.3	4338
Denmark	78.4	69.8	3.8	3909
Finland	79.5	71.1	2.8	3974
France	80.9	72	3.8	3840
Germany	79.8	71.8	3.8	3360
Greece	79.6	71	3.7	3394
Hungary	73.2	64.9	5.7	6784
Iceland	81.2	72.8	1.4	2681
Ireland	79.7	69.8	3.7	3364
Italy	80.3	72.7	4.7	3185
Luxembourg	79.4	71.5	2.5	3427
Maxico	75.7	65.4	18.1	
Netherland	79.8	71.2	4.4	3103
New Zealand	79.9	70.8	5.2	4041
Norway	80.6	72	3.2	3206
Poland	75.3	65.8	6	5638
Portugal	78.9	69.2	3.3	4411
Slovak Republic	74.3	66.2	6.6	5804
Spain	81.1	72.6	3.8	3304
Sweden	80.8	73.3	2.8	2825
Switzerland	81.7	73.2	4.4	2952
Turkey	71.6	62	22.6	
United Kingdom	79.1	70.6	5	3459
USA	77.8	69.3	6.9	5066
Japan	82.4	75	2.6	2757
Korea	79.1	67.8	5.3	3842

정책자료 2009-01

OECD 국가 행복(well-being)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09년 10월
저자 김용하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40-1 93330